



광주시립오페라단 단원들이 지난 19일 오페라 '카르멘' 제작발표회에서 작품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리톤 조재경, 소프라노 김선희, 테너 윤병길, 메조소프라노 이리나 페트로바, 정갑균 예술감독, 메조소프라노 무츠미 타니구치.

# 세계를 매혹시킨 '카르멘' 15년만에 광주 공연

광주시립오페라단이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오페라 중 한편인 '카르멘'을 15년만에 광주에서 공연한다. 광주·전남 상생 프로젝트로 광주문화회관과 순천문화회관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공연은 28일(오후 7시 30분), 29일(오후 3시)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열리며 오는 9월 순천에서도 공연될 예정이다.

광주시립오페라단은 지난 19일 광주문화예술회관 내 시립오페라단스튜디오에서 제작발표회를 열었다. 러시아 성악가 이리나 페트로바 메조소프라노(카르멘 역)와 함께 윤병길 테너(돈 호세 역), 조재경 바리톤(에스카미요 역)이 극에 나오는 아리아들을 라이브로 시연했다.

이날 이리나 페트로바는 카르멘이 남자들을 유혹하며 부르는 곡 '하바네라'를 선보였다. 이어 조재경 바리톤이 에스카미요가 투우 경기를 앞두고 부르는 '투우사의 노래'를, 윤병길 테너가 돈 호세가 카르멘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밝히는 곡 '꽃노래' 등 유명한 아리아를 섬세한 표정·몸짓 연기와 함께 불렀다.

정갑균 예술감독은 "국내 최고의 성악가들로 출연진을 채용하고 노력했다"며 "특히 카르멘 역에 맡긴 성악가 이리나 페트로바를 캐스팅하기 위해 1년여간 30여통이 넘는 메일을 주고받았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립오페라단, 28~29일 문화회관 정갑균 예술감독·여자경 마에스트라 지휘 국내 최고 출연진... 카르멘 역 이리나 캐스팅

1875년 프랑스에서 초연된 조르주 비제의 오페라 '카르멘'은 프로스페르 메리메가 쓴 동명의 소설을 기초로 루도비코 알레비·앙리 메야크가 대본을 쓴 프랑스 오페라다. '그랜드 오페라' 형식을 빌려 발레·합창 등의 비중이 높고 무대 연출이 화려한 것이 특징이다. 1820년대 스페인을 배경으로 질투와 애증 등 인간의 원초적 내면 심리를 담은 이야기를 풀어낸다.

스페인 세비야, 고향에 병든 어머니와 약혼녀를 둔 청년 하사관 돈 호세는 어느 날 담배공장에서 동료와 싸워 감옥에 가게 된 집시 여인 카르멘의 호송 임무를 맡게 된다. 그는 카르멘의 유혹에 넘어가 그녀를 풀어주고, 집시 밀수꾼 페거리로 엮여 감옥 신세를 지게 된다. 그는 양심의 가책에 괴로워하다 카르멘이 스타 투우사 에스카미요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며 분노에 사로잡힌다.

여자경 마에스트라가 지휘봉을 잡고 이리나 페트로바 메

조소프라노(28일), 무츠미 타니구치 메조소프라노(29일)가 카르멘 역을 맡는다. 한운석·윤병길 테너(돈 호세 역), 최정원·김선희 소프라노(미카엘라 역), 조재경·고성현 바리톤(에스카미요 역)도 함께 무대를 꾸민다. 이리나 페트로바는 우크라이나 국립오페라단 키예프 셰브첸코 오페라 발레극장에서 솔리스트로 활동 중이며 '라 트라비아타' 베르디, '리굴레토' 막달레나 등을 맡아 연기했다. 무츠미 타니구치는 일본 니카카이 오페라 제단의 단원으로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로리, '돈 카를로' 에블리 등으로 출연했다.

또 광주시립교향악단의 연주와 함께 전남대학교 합창단, 순천시립합창단,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참여한다. 이원국 발레단, 순천시립극단도 함께 무대를 꾸민다.

정갑균 예술감독은 "원작 대본을 존중하며 그 깊이가 손상되지 않도록 극을 이끔되, 강조할 필요가 있는 소절·대사, 소품 등에서 현대인이 쉽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연출했다"며 "성숙미 있는 오페라로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무대를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R석 7만원, S석 5만원, A석 3만원, B석 1만원. 문의 062-613-8247, 062-412-2507.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 제2회 틈새미술전 수상작 전시회 28일까지 광주시청... 전국 여성정신장애인 참여

전국 여성정신장애인이 참여하는, '가공하지 않은 날 것의 예술' 아르브뤼 미술전 제2회 틈새미술전 수상작 전시회가 오는 28일까지 광주시청 시민홀에서 열린다.

'아르브뤼(Art Brut)'는 '원생(原生·raw) 미술'로 번역되며 '가공하지 않은 날 것 그대로의 순수한 미술'을 지칭한다. 1945년 프랑스 화가 장 뒤뷔페가 다듬어지지 않은 순수하고 창조적 충동에 의해 작업하는 정신질환자들의 그림을 예술적 창작물로 인정하는 말로 처음 사용했다.

정신요양시설인 소화누리가 주최하고 아모레퍼시픽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후원과 지원을 받아 열리는 틈새미술전은 미술적 재능이 풍부한 지역 여성정신장애인 작가 발굴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기획됐다. 공모 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한 올해 공모에는 전국에서 82명이 122점의 작품을 접수했으며 모두 28점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전시에서는 우울감이나 공황장애 등 증상을 소재로 자신이 겪는 어려움을 표현하거나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그리움, 자신과 같은 힘든 과거를 지나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응원의 메시지 등 자기 자신에 대한 지지, 희망, 자유를 표현한 독특하고 창의적인 작품이 주목받았다.

대상은 김진홍씨의 '응접실'이 차지했으며 최우수상은 김노은씨의 '나의 반복되는 고통'과 김혜영씨의 '노란 민들레 흰바비, 질경이'가 수상했다.

24일 광주시청 로비에서는 시상식과 개막식 행사가 열렸으며 전시 기간중에는 정신장애인 도슨트 4명이 정신장애인의 작품 세계를 그들의 시선으로 생생하게 설명해준다.

틈새 미술전은 시청 전시가 끝나면 오는 8월 1일까지 소화누리 틈새미술관에서 계속될 예정이다. 임상작들은 컵, 파우치, 손거울, 티셔츠, 텀블러 등 아트상품 디자인으로 사용돼 틈새미술관에서 판매되며 수익금은 전액 작가에게 지급된다. 문의 062-675-4024.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김진홍 작 '응접실'

## '오페라 아리아의 밤' '강석우와 함께하는 오페라갈라콘서트' 27일 빛고을시민문화관...강석우 사회

세계적으로 유명한 오페라 아리아들을 한 무대에서 만나 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다.

'강석우와 함께하는 오페라갈라콘서트'가 오는 27일 오후 7시 30분 빛고을시민문화관 공연장에서 열린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광주문화재단이 주최하는 이번 공연은 빛고을시민문화관이 추진하는 우수공연초청기획사업 '문화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두번째 공연으로 기획됐다.

배우 강석우가 사회·해설을 맡으며, 이봉환 지휘자와 함께 (사)서울콘서트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참여한다. 소프라노 김민지, 메조 소프라노 김보혜, 콜로라투라 소프라노 김민지, 테너 류정필, 바리톤 장동일이 출연한다.

영화 '이방인', 드라마 '학교', '열아홉 순정' 등으로 잘



지난해 12월 창녕에서 펼쳐진 서울콘서트필하모닉오케스트라 공연 모습.



배우 강석우

알려진 배우 강석우는 지난 2015년부터 CBS 음악 FM 클래식 프로그램 '아름다운 당신에게'의 진행을 맡고 있으며, 2017년에는 음악에 관한 이야기를 엮어 책 '강석우의 청춘 클래식'을 출판하기도 했다.

이날 공연은 푸치니의 오페라 '잔니 스키기' 중 '오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로 막을 올린다. 비제의 오페라 '카르멘' 중 '투우사의 노래'와 '하바네라', 로시니의 '세빌리아의 이발사' 중 '방금 들린 그대 목소리'와 '나의 이 거리의 만물 박사' 등 아리아가 무대에 오른다. 또 모차르트의 '마술피리' 중 '파파게노와 파파게나의 이중창'을 듀엣 무대로 선보이며 영화 '여인의 향기' 삽입곡으로 잘 알려진 카를로스 가르델의 춤곡 '포르 누노 카베자', 오펜바흐의 오페라 '호프만의 이야기' 중 '인형의 노래' 등 곡으로 관객을 기다린다.

2012년 창당해 70여 명의 단원들로 구성된 (사)서울콘서트필하모닉오케스트라(단장 김진용)는 예술의전당·세종문화회관·국립극장 등에서 공연했다. 지난 2017년 11월에는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에서 '마린스키 발레단'과 호흡을 맞추기도 했다. 전석 1만원. 문의 062-670-7942.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 담양 대담미술관, 27일 '문화가 있는 날' 행사

담양 대담미술관(관장 정희남)은 27일 '문화가 있는 날' 행사를 진행한다.

'대나무를 느껴봐!'를 주제로 열리는 이날 행사는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해설이 있는 미술관, 대나무 아트상품 음식 나누기, 대담 인생사진관 체험 등으로 진행된다. 또 현재 미술관에서 사진전을 진행하고 있는 리얼전 작가와 만나는 'Chaosms-Imaginary Space 사진 속 세상이야기'도 열린다.

행사는 11시 지역민과 함께하는 해설이 있는 미술관과 사물놀이 한마당을 시작으로 오후 5시부터 대담미술관 전시실, 체험관, 야외 공간에서 진행된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지역주민 및 대담미술관을 방문하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올해 대담미술관은 '지역민이 만들어가는 축제 한 마당: 竹竹方方(쭈쭈방방) 동네방네미술관'을 통해 향교리 아티스트와 함께하는 미술 워크숍, 대나무를 주제로 전통놀이체험 및 대나무아트체험, 인생사진관, 아트마켓, 푸드마켓, 징검다리 대나무팔레트축제, 미디어아트쇼, 국악과 양악의 콜라보 공연, 방석음악회 등 다채로운 문화 행사를 10월(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까지 진행한다.

문의 061-381-0082.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2~3년만 가는 방수? 20년 이상 너끈히 가는 옥상방수!**

**IPALG 트라이슈머 단일복합시트방수**

완벽방수, 내구성보장, 2중단열, 지진에 강한 탁월한 내구성, 6년무상A/S 정기점검

**대안건축사업의 우수건축자재 선정**

주택 맞춤형디자인 시공후, 시공전, 시공중, 시공후

주택 맞춤형디자인 시공후, 시공전, 시공중, 시공후

**특허공법**

완벽한방수, 난연소재, 맞춤형디자인, 2중복합단열, 내진보강

**IPALG 트라이슈머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건물에 맞춤형 디자인을 입혀 리모델링 하세요!**

**특허공법 · 디자인방수 · 외벽리모델링 전문기업**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검색창에 **이파엘지**

광주전남대리점 (062)511-0444

H.P 010-6603-0405

목포 (061)284-0485 여수 (061)683-0485

순천 (061)726-0482 광양 (061)795-0485

공식홈페이지 www.IPALG.co.kr

공식블로그 blog.naver.com/waterproof01

**SINCE 1982**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2015~2019 대한민국소비자대상 소비자브랜드부문 [5년 연속] 수상

2016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 수상 혁신상 [혁신기술상] 수상

2017 미국 빅 이노베이션 어워드 (BIG Innovation Award) 수상 [혁신상품부문] 수상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

**국제보청기**